



환영사

먼저 2015년에 서울의 중심대학(center)인 한성대학교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1,600명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한성대학교에 보내 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가족이 된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한 서울의 중심대학 대학인으로서 지금 새로운 각오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 4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며, 대학 1학년은 전체 대학생활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내기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한성대학교에서 좋은 친구와 훌륭한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시길 바랍니다.

새내기 여러분! 우리 한성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환학생, 어학캠프, 복수학위 등의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junior 고시반 신설, 전공교수님들과의 mentor 제도를 보강하여 인성 교육 강화 및 취업 진로 지도 등을 배우는 필수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역량개발센터(CTL)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수법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였고, 상담실을 확대 개편하여 학생들의 직업선택, 진로등 상담서비스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교양 프로그램도 특성화 차별화를 하여 교양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게 할 수 있고 인성과 사회성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문호를 많이 개방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프로그램과 알찬 제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기발전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무한한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은 그들이 배출한 7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창조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 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do what you love)' 이었습니다."

열정이 성공을 만듭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불타오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뜨거움이 아닌, 묵묵히 오래가는 뚝배기 같은 열정이라야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용에 나오는 기천(己干)정신을 오늘날의 메시지로 주고 싶습니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백번을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남들이 열 번에 한 것이라면 나는 천 번을 해서라도 하게 만들 것이다(一能之 己百之 十能之 己千之)'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탁월한 학업성취와 사회에 공헌하는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성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내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신입생 행사일정

25일

학부모 OT

무용학과 공연	
오고무	낙산관 대강당(10분)
본식 행사 : 동영상 상영 및 학교소개	
사회 및 진행	배창학(경영 2), 이현경(무역 2) *방송국 앵커, 인턴십 교육 수료
학교 동영상 상영	영상 상영
학교연혁 및 개요 소개	이창원 교수처장
총장님 환영사	강신일 총장
학장님 소개(단대학장)	조승호팀장
졸업생 성공스토리	영문과 졸업생 김재경(08) 삼성 입사(2014년 5월) - 교육프로그램 참가
신입생 영상편지	동영상 상영
종합관, 학술정보관 소개	박종서 사설지원팀 팀원 정미영 학술정보팀 차장

교내 프로그램 소개

국제교류 프로그램	김일환 국제교류협력팀 과장
장학 프로그램	한영철 학생지원팀 차장
취업 프로그램	조중집 취업창업지원팀 차장
폐회	배창학(경영 2), 이현경(무역 2)
단체별 리셉션 : 전공별 교수와의 만남	
사회	조승호 대외홍보팀장
동아리 오케스트라	한성 오케스트라
리셉션(단체/학교별)	낙산관 체육관

26일

입학식

무용학과 공연	
개식사	
국민의례	
장학증서 수여	
총장 환영사	
신입생 선서	
교가제창	
폐식사	

신입생 영어 시험안내

시행일시 26일(목) 14:00~16:00 (13:30입실)
시험과목 영어(모의토익)
장소 탐구관(세부 고사실 추후 공지)
준비물 지우개, 연필
본 시험은 교양필수과목인 영어커뮤니케이션을 수강에 있어 등급배정을 위한 시험입니다.

주차안내

현재 본교에서는 25일(수) 학부모 OT 행사 당일 주차 안내인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고등학교 주차장, 우촌관 주차장, 테니스장 주차장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합관 신축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25일(수)학부모 OT 행사 당일 교통혼잡과 주차공간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수강신청

1학년	
주간 10:00 ~ 15:00 야간 16:00 ~ 21:00	2.27(금)
주간, 야간 10:00 ~ 12:00	2.28(토)
수강신청 정정기간	
주간 10:00 ~ 15:00 야간 16:00 ~ 21:00	3.2(월)~3.5(목)
교차수강	
11:00 ~ 17:00 (주·야간 동시 신청)	3.6(금)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웹으로 함(<http://info.hansung.ac.kr/>)

수강신청 TIP

- 시간표를 잘 때는 Plan B는 필수!
- 종합정보시스템 서버시간을 간파하라!
- 학점은 되도록 꼭 채워서 시간표 짜기!
- 핵심교양을 먼저 신청하라!
- 수강신청 전에는 Ctrl+C, Ctrl+V 연습!
- 분반을 제대로 입력하라!
- 수강신청 5분 전부터 준비태세!
- 이미 신청되어 있는 강의는 절대 취소 금지!
- 그럼 모두들 수강신청 성공하세요!

한성대 캠퍼스MAP

1. 낙산관

필수교양인 '대학과 지성' 수업이 진행되는 낙산관! 특히 낙산관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어, 체력단련실은 유명 헬스장 부럽지 않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지. 명품 바다라인을 꿈꾸는 한성인이라면 운동한 후 샤워까지 깔끔하게 하는 걸 추천! 또 낙산관 옆에는 낙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 공부에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 올라가봐. 너구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2. 인성관&창의관

인성관과 창의관은 서로 이어져 있어. 반층만 내려가면 탐구관, 반층만 올라가면 인성관이지. 인성관은 흔히 동아리 건물이라고 불려. 동아리에 들고 싶으면 인성관에 가봐. 그리고 창의관은 교내식당부터 시작해서 학생지원팀, 건강관리실, 소강당 등의 시설이 있지.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창의관에 자주 찾아가게 될거야.

3. 미래관

한성대 핫플레이스는 바로 미래관이야! 책을 빌릴 때는 미래관에 있는 학술정보관을 찾아가봐. 또 학술정보관의 각 층에는 스터디룸이 있어. 스터디룸 뿐만 아니라 미래관에는 스터디라운지가 있지. 조별과제 때문에 장소를 찾는다면 미래관에 가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라지아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습실이 있어.

4. 우촌관

교육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어? 수강신청 정정을 해야 하나? 그럼 우촌관 2층에 있는 종합행정실로 가봐. 행정 부서들이 한 자리에 있어 행정처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종합행정실은 교육장학금, 수강신청문의 등의 여러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어. 그리고 우촌관 2층은 미래관 지하와 이어져 있어 비오는 날에 다니는 센스!



- ① 낙산관
- ② 인성관&창의관
- ③ 미래관
- ④ 우촌관
- ⑤ 공학관
- ⑥ 연구관
- ⑦ 진리관
- ⑧ 탐구관
- ⑨ 지선관
- ⑩ 학송관
- ⑪ 학군단
- ⑫ 신문사

5. 공학관

공학관은 두 건물이 이어져있어. 각 과에 따라 실습실이 나눠져 있고 이용시간이 다르니까 유의해. 그리고 테니스장이 가까이 있어 공대 남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야?! 그런데 테니스 라켓이 없대? 그럴 땐 창의관에 있는 학생복지위원회를 찾아가봐. 테니스 뿐만 아니라 탁구와 배구공까지 선배들이 친절하게 빌려줄 거야.

6. 연구동

교수님을 찾아뵙고 싶을 때는 연구동으로 가봐. 뵙고싶은 교수님이 어디계신지 모르겠다면 연구동 1층에 호수가 적혀져 있으니 천천히 성함을 찾아봐.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 뵙기 전에 전화를 미리 드리고 찾아뵙는 너는 예의바른 한성인!

7. 진리관

진리관은 패션디자인전공 실습실 외에 제본실과 학생회실이 있어. 그리고 일반 강의실은 4층에 있는데 진리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자각 5분 전이라? 그러면 너의 튼실한 다리를 믿을 수 밖에... 그리고 진리관은 화장실이 2층엔 남자화장실, 3층엔 여자화장실만 있으니 화장실을 못 찾아 당황하지마.

8. 탐구관

탐구관에서 듣는 강의에 급하게 프린트할 게 있으면 미래관까지 달려가지 말고 2층에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찾아가봐. 실습수업뿐만 아니라 인쇄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 참, 그리고 배가 고킬 때 지하 1층에 있는 매점까지 빨리 갔다와봐. 5분 안에 모든 것을 먹는 신공을 보여줘! 쉬는시간 매점에서 컴퓨터를 흡입하고 있다면 대학생 적음 100%.



오늘의 런치박스



급식학식파



난 아직 급식이 좋다. 빠르고, 적절한 양. 메뉴 고민 따위 날려버리고 교내 학생식당 옛향의 세계로. 2500원으로 먹는 한 끼에 나는 만족한다!

커피&도넛파



밥보다 아메리카노와 도넛 한 입. 미래관 지하의 그라지아에는 나에게 있어 카페가 아닌 밥집. 베이글 먹다가 더 배고플 땐 커피 사이즈 업.

엄마손맛파



엄마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이 그리워 백반집을 찾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찌개하나 주세요. 사실 우리 엄마 음식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배달음식파



식당에 가는 것도 지겹다. 그리고 나의 엉덩이는 무겁다. 그럴때는 배달 음식이 최고! 배달 어플은 필요하지 않다. 각 학교, 동아리 별로 단골집이 있으니까!

패스트푸드파



지하철 입구에 나오자 롯데리아 보인다. 그 맛은편 맥도날드. 버거와 콜라, 감자튀김만 있다면 나 이제 배고프지 않아. 아침에는 맥모닝을 먹는다. 내 나이 20대이지만 가끔씩 해피밀도 먹고 장난감도 얻는다.

맛집기행파



나는 첫수업과 마지막 수업 사이의 기나 긴 공강을 맛집기행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성대의 맛집뿐만 아니라 성신여대, 대학로의 맛집까지 탐방할 것이다. 먹방을 위해 오늘도 발 빠르게 가까운 언덕을 뛰어 내려간다.

새내기 “어머! 이걸 해야해”

1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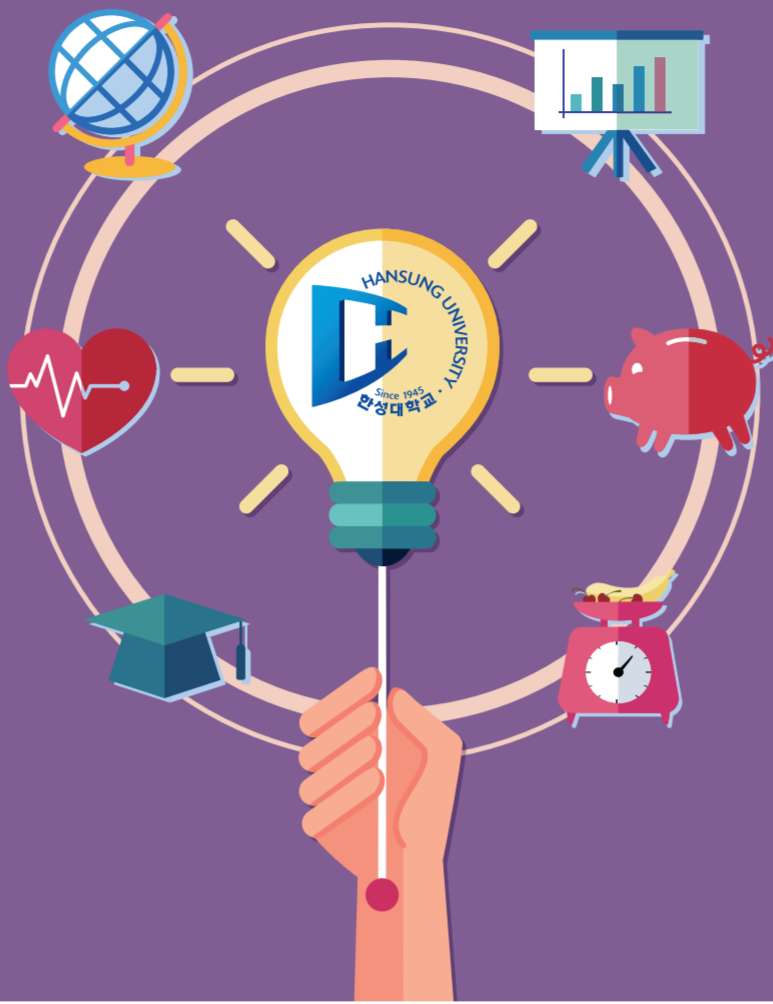
재학생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1위, 여행!! 취업준비로 바쁜 현내기들에 비해 여유롭고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스무 살, 자유로운 대학생이 된 만큼, 여행은 꼭 해보자. 수험생활의 지친 심신의 여유를 만끽하며 자기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한 당신, 떠나라.

2 연애

CC(캠퍼스 커플), 미팅 등 새내기들이 꿈꾸는 대학생활의 로망인 연애. 송중기를 닮은 선배와 씬을 타는 상상은 누구나 꿈꿔 봤을 것이다. 그러나 환상에 젖어 길이가 기성거리로 남는 캠퍼스 연애는 금물.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고 진정한 연애를 해야 한다. 특히 음흉한 미소를 띤 복학생 선배는 조심하도록 하자.

3 장학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를 느끼느라 대부분 학점 관리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학점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만이 그 수준을 유지한다.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는 마력의 장학금. 4년 내내 받아 교수님의 사랑을 독자지하기를 바란다.



4 해외활동

대외활동의 가장 큰 매력은 관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비, 해외여행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을 누릴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야인 '해외탐방'을 통해 대외활동에도 참여함과 동시에 '로망'인 해외여행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5 아르바이트

대기업 사무보조, 학원 조교, 민속촌 거지까지 20대에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수 있다. 성인이 되었음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신의 적성에 맞고 진로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꿀알바'를 해야 한다.

6 다이어트

'인생은 다이어트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처럼 수험시절 부족했던 운동량으로 인해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에 도달하고 말았다. 흔히 다이어트는 금지 않은 복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예쁜 몸매를 가질 시기가.

인 캠퍼스, 한성에서 찾자

본고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교환학생, 디즈니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이 세가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봉사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싶니? 동시에 해외봉사와 문화탐방을 경험 할 수 있는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을 추천할게. 저개발국가의 학생들과 소외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특기가 없어도 성실함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1학년 때 지원하면 서류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디니까 꼭 지원해봐!

반수현 (산경 4)
2014년 7월 6일 ~ 7월 23일 / 우즈베키스탄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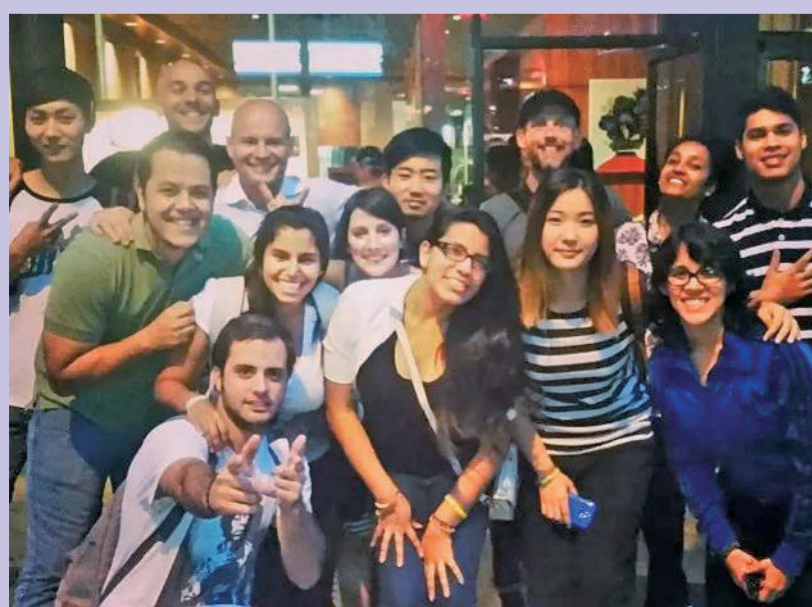
17기 해외봉사때 나는 과학교육과 부채춤, 난타공연을 맡았어. 한국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동료들과 서로 땀 흘리면서 준비했었지.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도 막상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니 내가 맡은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언어도 달라서 막막 하더라고. 그때 같은 조 동료들이 서로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이 수업에 잘 따라와줘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 한국의 날에 우리가 준비했던 문화공연을 선보였는데 이제 아이들과 헤어진다 생각하니 공연 도중에 울컥하더라고. 아직까지도 울면서 한국어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생생해. 헤어짐이 힘들었지만 이런 순수한 아이들과 보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다들 한번쯤은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할 거야. 외국인 친구들과 캠퍼스를 누비며 외국어로 듣는 전공수업 어때? 학기가 끝나면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추억을 쌓을 수 있지. 파견 국가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국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 너에게 맞는 국가로 정하면 될거야. 외국어로 전공 수업도 듣고 토론도 하니깐 어학 능력을 갖춰서 3학년 때 꼭 지원해봐. 교환학생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3월 4일 본교에서 진행되는 국제교류설명회에 가는 거 어때?

박선영 (의패 4)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캐나다 Medicine Hat College 파견

의류패션디자이너이지만 무역을 복수전공해서 Medicine Hat College에서 주로 무역 수업을 들었어. 약10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머물다보니 영어 회화 실력이 많이 향상됐어. 토익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갔다오니 900점대로 크게 늘었다고. 매주 금요일마다 파티가 열려서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어. 캐나다는 여름 방학이 4개월이라 친구나 가족들과 미국서부와 멕시코, 캐나다로 여행을 갔어. 한국문화랑 많이 달라서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교환학생



디즈니 해외 인턴십



교환학생과 해외 인턴십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디즈니에서 일하기 전에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10일 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강의를 들어. 10일이 지나면 24주 동안 시급 8\$를 받으며 디즈니 랜드에서 일을 하게 되지. 참가는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지만 디즈니 현지 직원이 직접 영어로 면접 심사를 진행하니 영어 회화를 미리미리 준비해 아예.

최효선 (행경 4)
2014년 7월 ~ 2015년 1월 / Walt Disney World 파견

나는 디즈니 햄버거가게와 상점에서 일했어. 디즈니에서 일하는 직원의 약 90%가 서양인이고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디즈니를 찾아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어.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매우 적어서 미국 문화에 100% 투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물론 문화가 달라서 힘들기도 해. 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나에게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인턴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동화같은 디즈니의 풍경을 보면서 힐링했어. 다양한 문화를 한번에 겪어 보고 싶다면 디즈니 해외 인턴십에 꼭 지원해봐.

내 머릿속엔...



◀ 15학번 새내기



12학번 재학생 ▶

힘들었던 입시가 끝나고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동기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네 학점은 신경을 써야 해. 전날 밤에 밤새 노느라 다음날 1교시 결석에, 과제 미제출, 시험도 금방 지나가버리고 연세가 성적표를 보고 눈물을 흘릴 거야. 안 그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쁜데 재수강에 계절학기, 초과학기까지 겪고 싶진 않겠지?

자, 이것부터 지켜봐. 수업 지각-결석 절대 없기. 과제 제출시간 엄수하기!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초로초통하게 수업 듣기. 교수님과 친해지기. 시험 볼 때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에 내가 더 찾아서 공부한 내용을 추가로 적는 것도 팁이야.

1학년 때 성적이 잘 나오면 전공 외에도 교직,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해외 인턴십 등 너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길 테니까. 풋풋한 너의 1학년을 후회 없이 보내길 바라!

펜은 칼보다 강하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지 **시사IN** 제6회 대학기자상 특별상 수상



한재원 행정12 편집국장

한지선 패디14 취재부장

최혜정 의패14 학술부장

오혜진 한국어문14 학술부 기자

노유진 경영14 사회부장

임태미 시각영상14 문화부장

제40기 수습기자 모집

- 지원자격** 15학번 새내기 누구나
- 모집분야** 취재/학술/사회/문화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활동기간** 입사 후 4학기
- 기자혜택**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임기완료 후 기자인증서 발급
- 선발전형** 1차전형-입사지원서 작성(온라인 지원 혹은 신문사 방문)
2차전형-서류심사 후 면접
- 문의사항**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한성대 신문 02-760-4186
- 신문사위치**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